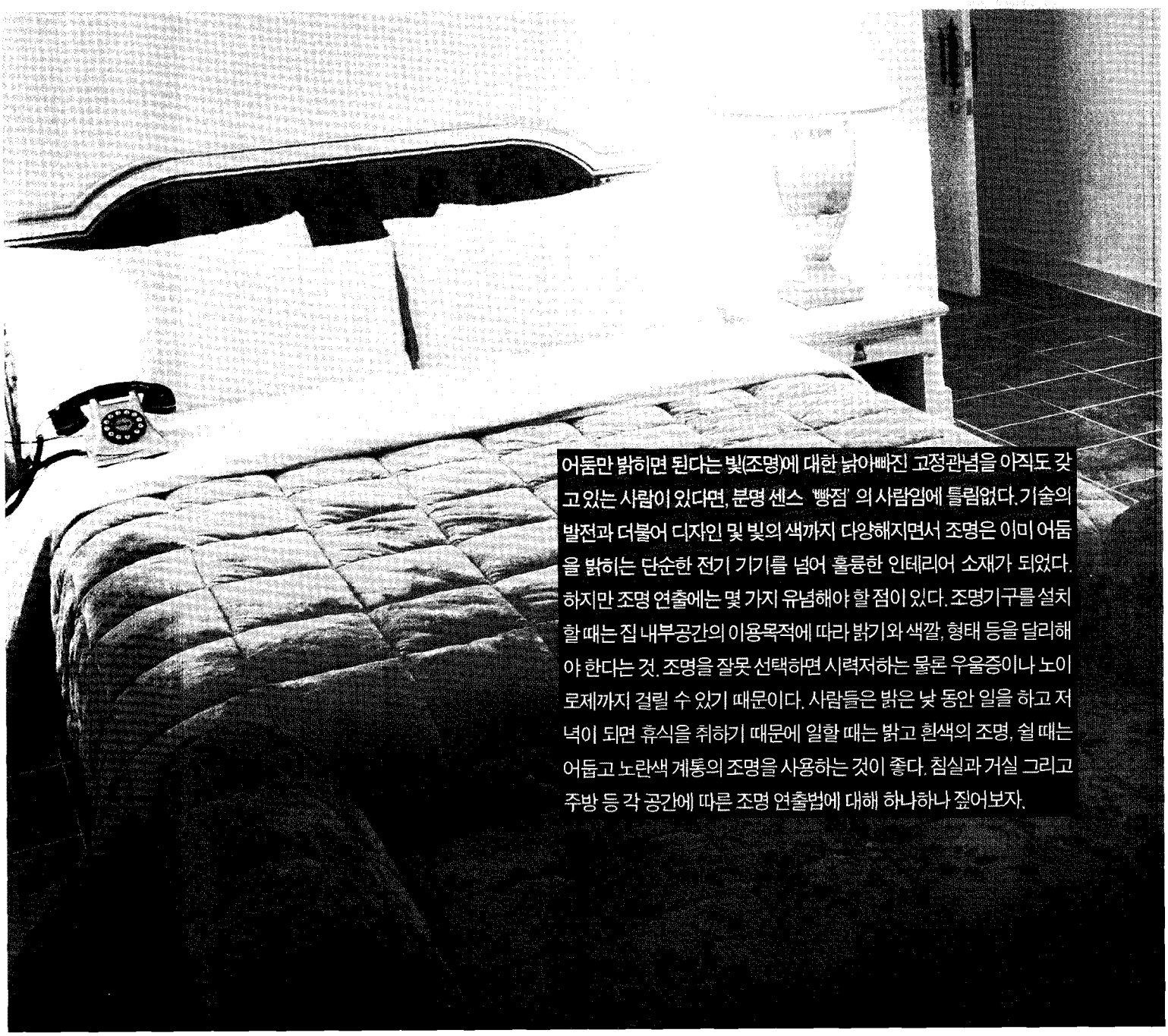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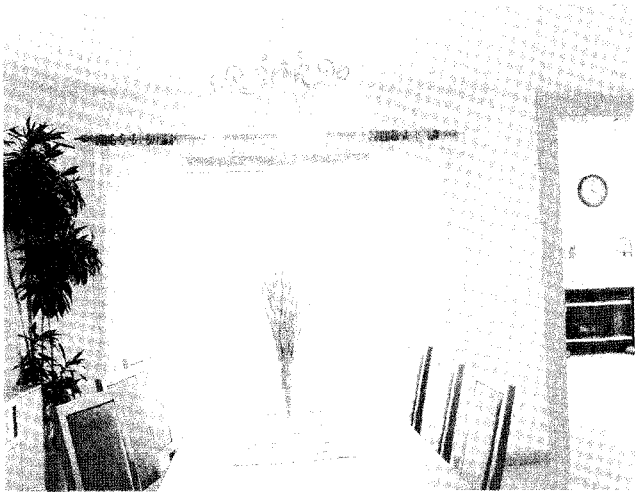
분위기 Up!
조명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울철, 집안 분위기를 아늑하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동안 어둠을 밝히는 전기 기기로만 생각했던 조명을 이용하면 실내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다.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인테리어적인 감각 그리고 눈의 건강을 고려한 탁월한 조명 연출법을 살펴보자.

에디터 | **이민우**



어둠만 밝히면 된다는 빛(조명)에 대한 낡아빠진 고정관념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센스 '빵점' 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자인 및 빛의 색까지 다양해지면서 조명은 이미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전기 기기를 넘어 훌륭한 인테리어 소재가 되었다. 하지만 조명 연출에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는 집 내부공간의 이용목적에 따라 밝기와 색깔, 형태 등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조명을 잘못 선택하면 시력저하는 물론 우울증이나 노이로제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밝은 낮 동안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할 때는 밝고 흰색의 조명, 쉴 때는 어둡고 노란색 계통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침실과 거실 그리고 주방 등 각 공간에 따른 조명 연출법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자.



● 침실은 정적인 분위기로

침실은 휴식을 위한 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주황색 계통의 조명을 사용한다. 전체 조명은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조도를 60~150럭스(평균 약 100럭스) 정도의 낮은 것으로 선택하고,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독서 등을 위해서는 빛의 양이 조절되는 스탠드를 부수적으로 활용한다. 분위기를 내려면 침대의 양 벽면에 브래킷(벽에 붙이는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침실 내부에 그림 액자가 있다면 천장에 매입등을 따로 설치해 부분적인 밝기를 더해도 괜찮다. 하지만 분위기만을 고려하기 전 눈의 건강을 위해 조명 밝기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거실은 편안하고 단란한 분위기로

거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임을 감안해 3종류 이상의 밝은 흰색 계통의 조명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 이상적이고, 전체적인 조도는 300~400럭스가 적당하다. 거실에는 단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색의 재현도가 높은 형광 삼파장 램프가 알맞다.

거실의 천장에는 상들리에나 연결선 없이 직접 부착하는 실링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며, 벽면에는 브래킷을 국부 조명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매입등을 벽면 장식장 내부에 설치해 부드러운 간접 조명으로 활용해도 괜찮다. 그밖에 거실 분위기를 보다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벽이나 천장 외에도 바닥과 가까운 높이의 조명 연출이 필요하다. 바닥에 세워두는 플로어 스탠드나 테이블 위에 올려 두는 테이블 램프 등을 활용하면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다. 장식적인 면까지 생각한다면 거실만큼 오브제 조명을 세우기에 좋은 곳이 없으므로 잘 활용하도록 한다. 상들리에는 어른이 섰을 때 아랫부분이 눈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높이로, 약간 낮은 듯한 느낌이 들게 설치하는 것이 인테리어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 주방은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을 적절하게

주방 조명은 크게 식탁 조명과 주방을 위한 전체 조명으로 구분하고, 전체 조명의 밝기는 대략 400럭스로 한다. 식탁 위에 설치하는 조명 기구는 장식적인 분위기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백열전구나 할로겐 램프, 연색성(물체의 색감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좋은 형광 램프가 적당하다. 또한 반사갓이 달린 펜던트 조명은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더욱 맛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줌으로 음식의 풍미를 잘 살릴 수 있다. 이때 펜던트 조명은 높이 매달아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주방 전체 조명으로는 투명한 아크릴 커버의 형광램프를 선택하고, 개수대와 조리대 등 국부 조명이 필요한 작업 공간에는 천장 매입형의 백열전구를 사용한다. 개수대와 조리대는 위생과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해 주방 전체 조도보다 밝은 700럭스 정도가 알맞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명을 조리 선반 밑에 설치해야 그림자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밖의 공간 조명은 어떻게?

✲ 욕실 조명

욕실 조명은 30~60W의 백열등이 제격이며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녹슬지 않는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작은 욕실에는 조명을 거울 위에 달면 그림자도 지지 않고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욕실이 넓은 경우에는 중앙 조명과 함께 면도 등에 지장이 없도록 거울 위에 국부 조명을 달아준다.

✲ 아이 방

아이 방은 형광등만으로 부족하므로 책상에 별도의 스탠드를 설치한다. 공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500럭스 이상의 밝기가 좋으며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체 조명과 함께 사용한다.

✲ 현관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 점등이 되는 조명이 유행했지만 자주 켜지고 빨리 꺼져 오히려 불편하다. 자주 불을 켜지 않는 현관에는 천장에 다는 백열등이 좋다.